

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
배 포 일	2018.5.10.(총 5매)	담당부서	전화
과장 / 담당	홍정익/김성순 박 옥/노유미 박기준/손태중	위기대응총괄과 위기분석국제협력과 검역지원과	043-719-7190/7191 043-719-7550/7561 043-719-7140/7144

아프리카 DR콩고 에볼라 발생...여행자 감염주의!

국내유입 대비 에볼라 발생지역 출입국자 검역 강화

- ◇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유행했던 에볼라...DR콩고에서 또 재발
 - DR콩고 여행객, 귀국 후 검역시 건강상태질문서 필히 제출
 - 귀국 후 21일 이내 의심증상(발열 등) 발생시 1339콜센터로 신고해야
- ◇ 여행시 박쥐·영장류 등 접촉금지 등 예방수칙 철저히 당부

□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5월 8일(화)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(DR콩고)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DR콩고 방문시 감염주의를 당부하는 한편, 에볼라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DR콩고 출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.



<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지역(에콰테르주)>

- WHO(세계보건기구)는 5월 8일 콩고민주공화국(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)의 북서부 에콰테르(Equateur)주 비코로(Bikoro)*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환자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.
 - * 수도인 킨샤사(kinshasa)로부터 40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,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수도로의 접근성이 떨어짐
- 비코로(Bikoro)에서 지난 5주간 원인불명의 출혈열 의심환자 21명이 발생하고 17명이 사망하였다.
-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가 실시한 의심환자 5명의 검사 결과, 2명의 검체에서 에볼라바이러스가 검출됐다.
- WHO는 지난 2017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에 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대응수준을 격상하였고, WHO·콩고민주공화국·국경없는의사회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.
 - *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과거 총 8번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보고되었으며, 가장 최근에는 '17년 5월 바우엘레(Bas-Uel)지역에서 환자 8명(사망 4명)이 발생하였으며, 이는 '17.7.2일 WHO에 의해 종결 선언된 뒤 다시 발생한 것임
-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필로바이러스과(Filoviridae) 에볼라바이러스속 (Genus Ebolavirus)에 속하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2-21일(평균 8-10일)의 잠복기를 거쳐, 발열, 복통 등 증상 외 출혈 등의 임상 양상이 나타난다.
 - 또한, 감염된 동물 섭취 및 체액 접촉,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다.
 - 에볼라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발생지역 방문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.

- ◆ **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**
 - 여행 전,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확인
 - 유행지역에서 박쥐나 영장류(원숭이, 오랑우탄, 침팬지, 고릴라 등)와 접촉금지 및 이들의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
 - 에볼라바이러스병 (의심)환자와의 접촉 금지
- ◆ **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여행 후 주의사항**
 - 귀국 후 21일 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시, 1339 또는 보건소로 먼저 신고
 - 귀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시 제출

□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발생지역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과 의심환자 초동대응을 강화한다.

○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자(외교영사콜)를 발송하고, 귀국 시에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며,

- 귀국 후 21일 이내에 발열, 복통 등 증상 발현 시 ☎1339(질병관리본부콜센터) 또는 보건소로 신고토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일선 의료기관에는 해당 입국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.

○ 또한 의심환자 발생 신고 시 역학조사관 현장출동, 확진환자 발생시 즉각대응팀 투입을 준비하고, 확진검사를 위해 생물안전실험실 (Biosafety Level 4, BL4)*운용을 점검하며,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및 이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.

* BL4시설은 에볼라 등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제 4위험군 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최고등급의 생물안전 연구시설로 세계적으로 16개국만이 BL4를 보유하고 있으며, 아시아에서도 일본을 비롯한 일부국가들만이 구축하여 운영

- <붙임> 1. 에볼라바이러스병 개요
2.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 및 행동수칙

붙임 1

에볼라바이러스병 개요

구 분	내 용
방역이력 및 발생 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법정감염병(제4군) ICD-10 A98.4 ▫ 국내현황 : 보고 없음 ▫ 세계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976년부터 2012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간헐, 산발적 유행으로 기봉, 콩고공화국, 코트디부아르, 수단, 우간다 등에서 발생한 바 있음 - 2014년 서아프리카 지역(기니, 라이베리아, 시에라리온 등)에서 대규모 유행
병원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에볼라바이러스(Ebola virus)
감염경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과일박쥐로 추정 ▫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(타액, 소변, 구토물, 대변 등) 등이 피부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환자의 성 접촉으로 정액을 통해서도 감염
잠 복 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평균 8-10일(2-21일)
주요증상 및 임상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고열, 전신 쇠약감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 등 비전형적인 증상 이후에 오심, 구토, 설사, 발진이 동반되고 따로 체내외 출혈 경향 ▫ 사망률 : 25-90% (바이러스 유형이나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진 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바이러스 분리 ▫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▫ 특이 IgM 항체 검출 ▫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
치 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대증요법
환자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환자 관리: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 ▫ 접촉자 관리: 21일간 증상발현 유무 감시,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즉시 격리조치
예 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현재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개발 중 ▫ 유행 지역 방문 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▫ 환자 발생 시 환자의 체액과 가검물에 접촉 주의 ▫ 손씻기 등 개인 위생

붙임 2

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 및 행동수칙

◆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

- 개인위생 (손 씻기 등) 수칙 준수
- 오염된 손으로 눈, 코,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
- 보건인력 환자 관리 시 상황(치료, 간호, 이송, 사체처리 등)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조치 적절 수행

◆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

- 여행 전,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확인
- 아프리카 등 유행지역에서 박쥐나 영장류(원숭이, 오랑우탄, 침팬지, 고릴라 등)와 접촉금지 및 이들의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
- 에볼라바이러스병 (의심)환자와의 접촉 금지
 -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금지
 -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의 물건 등과의 접촉 금지
 -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및 유행지역 동물이나 사람의 사체와 접촉금지
 - 에볼라바이러스병 (의심)증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장 방문 주의

◆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여행 후 주의사항

- 귀국 후 21일 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시, 1339 또는 보건소로 먼저 신고
- 귀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시 제출